

법무매거진

민주당,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김종철 연세대 교수,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 선정



법조인 동정



〈김종철 연세대 교수(왼쪽부터),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〉

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처장을 위한 여당 몫 후보추천위원회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(54),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(59)을 선정했다.

민주당 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’ 추천위원회는 이날 김 교수와 장 전 회장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심의·의결을 했고 최종 추천위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.

김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,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,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로 평가된다.

장 전 회장은 현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, 전 전국지방변호사회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

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명정대한 수사,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추천위는 밝혔다.

민주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돼 있어 해당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.

추천위는 “조속히 후보추천위원들이 임명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.”고 밝혔다. 이어 “미래통합당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제1 야당에 주어질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길 바란다.”고 촉구했다.

(출처/경향신문)